

# 하늘이 내린 큰 복

洪天  
福賜

明慧期刊 제148기





▲2025십자수: 法轮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 목차

## CONTENTS

- |                |    |                            |
|----------------|----|----------------------------|
| 권두일문           | 1  | 평안하고 건강한 황금 열쇠             |
| 독후감            | 2  | 한 통의 편지가 그녀의 운명을 바꾸다       |
| 길성고조<br>(吉星高照) | 4  | 백신 후유증이 사라졌다!              |
|                | 5  | 몇 시간 만에 코로나를 물리치다          |
|                | 6  | 머리가 트이고 성적이 급상승            |
| 절체절명에서<br>살아나  | 7  | 7년 투병 끝내고 하루아침에 완쾌         |
|                | 8  | 한 외과의사가 겪은 의학적 기적          |
| 세상을 이롭게        | 12 | ‘전법륜’을 읽고 방탕아가 중국 문화에 빠져들다 |
|                | 16 | 전 세계 수백 명의 정계 인사들, 파룬궁을 찬양 |
| 평안을 얻는 길       | 21 | 허무한 꿈 깨고 구함 없이 스스로 얻다      |
|                | 24 | 가스통이 폭발하려는 일촉즉발의 위기 속에서    |
| 아는 것이 복        | 26 | 상식을 회복해야 우리의 길을 알 수 있다     |
|                | 28 | 왜 ‘삼퇴(三退)’해야 평안을 얻을 수 있는가  |
| 항간여론           | 29 | “걸어치워라! 국민을 속이려는 자작극이잖아!”  |

# 평안하고 건강한 황금 열쇠

모든 사람의 생명은 소중합니다. 안타깝게도 최근 몇 년간 중국에서는 코로나 19 전염병이 반복하며 좀처럼 잠잠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와 백신 부작용의 피해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으며, 특히 최근 1~2년 사이에는 나이에 상관없이 돌연사하는 것이 중국 각지에서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현재 코로나19가 다시 확산 조짐을 보이며 사람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중국에서 전해진 두 가지 실화, ‘백신 후유증이 사라졌다!’와 ‘몇 시간 만에 코로나를 물리쳤다!’를 소개하며, 독자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과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질병은 인류가 오랫동안 직면해 온 가장 큰 난제 중 하나입니다. 이번 호의 ‘7년 투병 끝내고 하루아침에 완쾌’, ‘한 외과 의사가 겪은 의학적 기적’은 절망 끝에서 새로운 삶을 찾은 두 이야기입니다. 전통문화에서는 질병이 인간의 업력 및 잘

못된 관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진심으로 선을 향해 나아가려 할 때, 하늘이 감응하여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줄 수도 있습니다.

‘한 통의 편지가 그녀의 운명을 바꾸다’, ‘전법륜’을 읽고 방탕아가 중국 문화에 빠져들다’, ‘허무한 꿈 깨고 구함 없이 스스로 얻다’는 현실 속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던 세 명의 중·서양 청년이 인과관계를 깨닫고 자신을 바로잡은 후 새로운 인생을 맞이한 이야기입니다.

이 밖에도 이번 호에는 더 많은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담겨 있으니, 독자 여러분 스스로 읽고 체득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이 이야기 속 주인공들처럼 불운을 행운으로 바꾸는 평안하고 건강한 황금 열쇠를 찾아, 자신의 행복 문을 여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하늘이 내린 큰 복’ 편집부

2025년 6월 15일

# 리홍쯔 선생이 전 인류를 위해 발표 《왜 인류가 존재하게 되었는가》 《왜 중생을 구도하려 하는가》 《인류사회는 왜 미혹(迷)의 사회인가》

▲ 리홍쯔(李洪志) 선생은 일련의 글을 발표하여 인류의 기원, 삼계(三界), 그리고 우주의 미혹(迷)을 밝혀냈으며 구구절절 천기를 담고 있다.

## 한 통의 편지, 그녀의 운명을 바꾸다

명혜 토론토 지국 보도

30세의 올리비아(Olivia)는 정원 설계 일을 하며, 아름다운 캐나다 머스코카(Muskoka) 휴양지에 살고 있다. 머스코카는 수많은 호수로 유명한 관광지로, 토론토에서 북쪽으로 차로 약 두 시간 거리에 있다.

올리비아의 어린 시절은 행복하지 않았다. 그녀의 가정은 끊임없는 분쟁의 전장이었고, 부모는 서로에게 분노를 쏟아부었다. 내성적이고 순종적인 올리비아는 고통을 마음속 깊이 눌러 담고 있었지만 오랜 시간 쌓인 감정은 우울하고 불안하며 분노하게 하였다. 사춘기에 접어든 올리비아는 마치 고삐 풀린 야



▲ 캐나다 올리비아 여사.

생마처럼, 술과 마약에 의지해 고통을 해소하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녀는 “그 당시 저는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는 아이였고, 기쁨이 뭔지 알 수 없었어요.”라고 말했다.





성인이 된 후, 올리비아는 부모의 전철을 밟아 남편과 격한 다툼을 반복했다. 하지만 다행히도, 한 통의 이메일이 이 악순환을 끊도록 도와주었다.

2023년 12월, 올리비아는 ‘왜 인류가 존재하는가’라는 글을 추천하는 이메일을 받았다. 그 글을 읽은 그녀는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다. “이 글이 저를 일깨워줬어요. 제 인생의 동력이 생겼죠.” 그녀는 곧 파룬궁 수련을 시작했다. 이전에는 매일 밤 대마초를 피워야만 잠을 잘 수 있었지만, 수련을 시작한 후 마약을 버려야 할 집착으로 보게 되었다. “믿기지 않을 정도예요! 한 달도 안 돼서 마약, 술, 담배를 모두 끊었고, 단잠을 잘 수 있게 되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몰래 암호 화폐를 구입했다가 큰 손실을 본 사실을 알게 됐다. 그녀는 분노했지만, 곧 수련자라면 화를 내지 말아야 함을 깨달았다.

마음을 안정하기 위해, 그녀는 ‘명혜망’에서 부부 갈등을 해결하는 경험담을 읽었다. “저는 남편에 대한 태도를 바꾸었어요. 원망을 너그러움과 이해로 전환한 거죠.”

그녀의 마음이 평온해지자, 남편도 점차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는 감정을 자제할 줄 알게 되었고, 화도 잘 내지 않게



▲아름다운 머스코카 풍경.

되었다. 올리비아는 부모에 대한 원망도 내려놓았다. “예전엔 부모님 말씀만 들어도 이유 없이 화가 나고 짜증이 났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이런 심리적인 변화가 저를 행복하게 만들어줬어요. 가족들도 제 변화를 보며 파룬궁이 좋다고 여기고, 수련을 응원해주고 있어요.”

올리비아는 이어서 말했다. “이렇게 훌륭한 수련법이 중공에게 모욕당하고 있어요. 중공은 파룬궁 수련자들이 ‘4·25’ 사건 때 정부를 공격했다고 주장하지만, 저는 단언할 수 있어요. 수련자들은 정부를 공격하지 않아요. 그것은 사부님의 가르침에 어긋납니다. 사부님은 선량하고 진실한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셨고, 정치와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박해를 받아도, 수련자들은 결코 폭력으로 맞서지 않았어요.”





## 백신 후유증이 사라졌다!

[쓰촨 투고] 2025년 5월 14일 이른 아침, 거리에서 한 남성을 우연히 만났다. 그는 최근에 겪은 기이한 일을 들려주었다. 약 한 달 전, 내가 그에게 파룬궁 진상자료와 파룬궁 호신부 하나 드린 적이 있다.

그는 말했다. “요즘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고, 치료비로 만 위안 넘게 썼어요. 어느 날 친구 부부에게 증상을 말했더니, 친구가 그건 백신 부작용이므로 병원에 돈을 아무리 써도 소용없고特效약이 없다고 했어요. 그 부부에게 어떤 할머니가 저에게 부적을 주셨는데, 그 위에 적힌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찌싼런하오(真善忍好-진선인을 좋습니다)’를 자주 외우면 재난을 피하고 병을 없앨 수 있다고 하셨다고 말했어요. 호신부를 보여줬더니 친구가 ‘그 아홉 글자가 바로 영험한 묘약이야.’라

고 말하자 제가 물었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하지?’ 친구가 말하길 ‘그냥 퇴원해.’ 그래서 즉시 퇴원해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 후 진심으로 ‘파룬따파하오, 찌싼런하오’를 계속 외웠더니, 며칠 만에 병증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이 아홉 글자는 정말 신기해요.”

전에 그에게 파룬궁 진상을 알렸을 때, 그가 나이를 물었다. 내가 84세라고 말하니, “정말 정정하시네요. 전혀 그렇게 안 보이세요.”라고 했다. 나는 ‘공산당에 대한 9가지 평론’, ‘명혜주보’, ‘천지창생(天地蒼生)’ 등 진상 자료를 가방에 넣어 드리며 꼭 읽어보시라고 권했고, 호신부도 하나 더 드리며 그 아홉 글자를 정성껏 외우시라고 당부드렸다. 그는 처음엔 반신반의하며 물었다. “그 몇 마디만 외운다고 재앙이 사라지고 병이 낫는다고요?” 나는 진지하게 말했다. “저는 진실만을 말합니다. 거짓말하면 인과응보가 따르지요. 저는 납치와 박해의 위험을 무릅쓰고 진실을 전하고 있어요. 그저 당신들이 큰 재난 앞에서도 무사하길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그는 직접 대법의 신기함을 체험한 후, 여러 번 식사 대접을 한다며 나를 자기 집으로 초대하려 했지만, 나는 그가 신의 가호를 받은 것을 축하하며 정중히 거절했다.





## 몇 시간 만에 코로나를 물리치다

[허베이 투고] 2021년 8월 바깥사돈이 17일간 격리되었는데, 당시 그는 한 아파트 단지에서 보안요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격리 기간, 작은 방에 혼자 갇혀 있었고, 매일 식사가 배달되고, PCR 검사를 받았다. 그는 매일 가족들과 통화하면서 “괜찮다”고 말했다.

격리된 지 보름쯤 지난 어느 날 밤, 갑자기 그가 심하게 앓기 시작했다. 고열, 갑갑함, 팔다리 통증, 전신 무기력, 호흡 곤란까지 겹쳤다. 그는 이렇게 괴로운 적은 처음이었다며 마치 질식할 것 같았다고 했다. 이게 바로 우한 폐렴(코로나19)이라고 생각했다.

안사돈은 파룬궁 수련자이고, 바깥사돈도 법공부와 연공을 따라 해본 적이 있었지만 두려움이 많았다. 이번에 병마가 갑자기 덮치자, 그는 즉시 대법을 떠올렸고, 간절한 마음으로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전싼런하오(真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를 반복해 외우며, 파룬궁 사부님께 도와달라고 간청했다. 또한 ‘오늘은 PCR 검사하러 오지 않게 해주세

요’라고 생각했는데, 정말로 그 날은 검사하러 오지 않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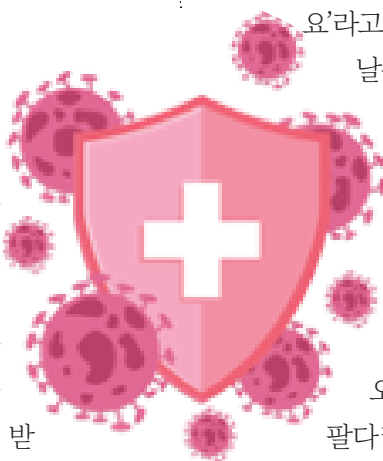
다. 만약 왔다면 그의 상태를 보고 즉시 격리 병원으로 옮겼을 것이다.

그는 고열로 입이 바짝 마르고, 목이 붓고, 오한과 열이 반복되며,

팔다리는 떨렸다. 그는 ‘이대

로 누워만 있으면 안 돼. 일어나서 연공해야겠어’라고 생각했다. 입으로 ‘파룬따파하오, 전싼런하오’를 외우며 힘겹게 일어나 파룬궁 공법을 하기 시작했다. 연공이 끝났을 때, 옷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땀이 발끝을 따라 바닥으로 흘렀다.

연공하는 동안 몸이 점점 좋아지는 것을 확연히 느꼈고, 몇 시간 만에 갑작스럽게 덮친 병세가 완전히 사라졌다. 바깥사돈은 그 이후 더는 안사돈이 진실을 알리며 사람을 구하는 것을 막지 않았고, 오히려 누구를 만나든 자신의 체험담을 기꺼이 전하며 말했다. “파룬따파는 정말 신기합니다!”





## 머리가 트이고 성적이 급상승

[중국 투고] 딸이 중학교에 다닐 때, 공부는 열심히 했지만 성적은 좀처럼 반에서 상위 5위 안에 들지 못했다. 어느 날, 딸아이가 숙제하고 있을 때 나는 “엄마가 너 대신 소선대와 공청단 탈퇴 성명을 해줄까? 그거 안 좋은 거야.”라고 했다. 당시 나는 막 파룬궁 수련을 시작한 상태였고, 진선인(真善忍-진실·선량·인내)을 박해하는 사악한 공산당이 나쁜 걸 알고 있지만, 아직 그 깊은 이치를 잘 설명하기 어려웠다.

똥똥에도, 딸은 듣자 고개를 번쩍 들며 시원하게 말했다. “좋아요. 엄마가

내용 써주면 서명할게요. 저도 그거 싫어요. 정치 수업이 제일 싫는데, 자기 생각은 못 쓰고 정해진 답만 써야 해서 정말 싫어요.” 놀랍게도, 딸아이가 소선대와 공청단에서 탈퇴한 뒤로 머리가 트인 것 같았다. 보충 수업에 다니는 친구들이 어려운 문제를 가져오면, 보충 수업을 듣지 않았던 딸이 척척 풀어냈다. 그때부터 성적이 급상승하기 시작했다.

고등학교 3년 내내, 딸은 학교의 크고 작은 시험에서 거의 항상 1등을 차지했고, 무난히 명문대에 합격했다. 대학에서는 매년 장학금을 받았고, 1학년 때부터 연구 과제에도 참여했으며, 이후 석사과정에 추천 입학했고, 지금은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

딸이 갑작스럽게 지혜가 열린 되는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믿는다. 첫째, ‘삼퇴(三退)는 복을 부른다’라는 말은 사실이다. 삼퇴는 공산당, 공청단, 소선대 조직에 가입할 때 몸에 찍힌 ‘짐승의 기호(兽印)’를 없애고 악령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사람이 바르면 복은 저절로 따른다. 둘째, 한 사람이 수련하면 온 가족이 혜택을 본다는 말도 진실이다. 나는 평소에 ‘진선인’의 원칙으로 아이를 교육해왔고, 딸은 그 덕을 보고 복을 얻게 되었다.







# 7년 투병 끝내고 하루아침에 완쾌

명혜망 토론토 지국



2014년, 17세의 매슈(Matthew)는 아 이스하키 경기 중 머리에 찢을 맞고 중병에 걸려 온종일 침대에 누워 지내야 했다. “두통은 점점 심해졌고, 2021년 6월에는 고통이 극에 달했어요. 그때 인생이 끝났다고 느꼈어요.” 매슈는 그 시절을 회상했다.

매슈의 어머니는 17~18년째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를 수련하고 있고 아들에게 많은 사람이 파룬궁을 수련하고 건강을 되찾았다고 알려주었다. 하지만 매슈는 믿지 않으며 자신의 상태가 회복될 가능성은 없다고 여겼다.

2021년 8월, 머리가 너무 아파서 눈을 10초도 제대로 뜨기 힘들던 매슈는 결국 어머니의 권유를 받아들여 법공부와 연공을 시작했다.

매슈는 말했다. “솔직히 처음 4개월 동안은 몸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2021년 선달그믐날, 여전히 몸이 쇠약해 낮에 ‘전법륜(轉法輪)’을 겨우 5쪽 읽고

는 두통과 피로로 더 읽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날 밤 갑자기 진심으로 수련을 시작하자. 돈에 대한 집착, 싸우기를 즐기고, 방탕한 생활을 추구하는 생각을 내려놓고, 착한 사람이 되자고 다짐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 몸에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매일 5쪽 읽던 책을, 단숨에 170쪽이나 읽은 거예요. 사부님께서 제 올바른 선택을 격려해주신 거로 생각해요.”

매슈는 이어 말했다. “지금 저는 건강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만족스러운 영업 직장도 얻었어요. 명예, 색욕, 오만, 분노 같은 부정적인 생각들을 버리자, 마음이 한결 평온하고 착해졌어요. 수련은 단순히 병을 고치거나 건강해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심성을 향상해 더 고상한 사람이 되는 거죠. 진심으로 진선인(真善忍·진실·선량·인내)을 실천할 때, 비로소 몸과 마음의 건강이 따른다고 믿어요.”





# 한 외과 의사가 겪은 의학적 기적

명혜기자 이렌(伊蓮) 인터뷰 보도

우파 비트(Upa Bit) 박사는 인도의 한 의과대학의 성형외과 주임이다. 의사로서 그는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의 질병조차 치료할 수 없었던 슬픈 과거가 있었다.

## 천식과 알레르기, 그를 무너뜨리다

비트 박사는 20세 때부터 만성 기관지 천식을 앓았으며, 먼지, 꽃가루, 면섬유, 여러 음식, 심지어는 찬 공기에도 알레르기 반응으로 인해 종종 호흡 곤란, 인후 감염, 피부병에 시달렸다. 30대 이후에는 고혈압까지 생겼다.

나이가 들수록 그는 점점 더 쇠약해졌다. 천식 치료를 위해 장기간 복용한 스테로이드 계열 약물은 골관절염을 유발해, 걷거나 계단을 오를 때마다 양 무릎이 아팠다.

결국 천식과 알레르기는 그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매일 흡입제와 항생제에 의존해 간신히 생명을 유지하는 나날은 그 자신뿐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고통스러운 현실이었다.

## 대법 수련으로 고질병이 기적처럼 사라지다

2004년부터 비트 박사는 마음의 안식을 찾아 다양한 수행 방법을 시도했고, 수많은 스승을 찾아가며 여러 종교적 경전도 읽어보았다.

2011년 10월, 한 친구가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를 소개했다. 예전엔 천식 때문에 똑바로 누워 잘 수조차 없었고, 잠든 후에도 질식할 듯 깨어나는 일이 반복됐지만, 놀랍게도 파룬궁 수련을 시작한 그 날 밤, 오랜만에 깊은 단잠을 잤다.

그는 즉시 파룬궁 창시자 리홍쯔(李洪志) 선생님의 9일 설법 강의 녹음파일을 내려받아 매일 경청하며, 꾸준히 연공을 견지했다. 몇 달 후, 무릎 통증이 완전히 사라졌고, 걷거나 계단을 오를 때 전혀 아프지 않았다. 지금 60대인 그는 몇 시간씩 걸어도 전혀 지치지 않는데 이는 30대에도 꿈꾸지 못했던 건강이다.

처음 파룬따파 수련을 시작했을 때, 그의 아내와 장모는 회의적이었고 또 다



▲ 인도의 한 의과대학 성형외과 주임인 비트 박사.

른 ‘새로운 시도’라고 여겼다. 그러나 그의 건강이 눈에 띄게 호전되자, 가족들은 믿지 않던 데서 점차 놀랐고, 나아가서 탄복하며 지금은 가족 모두가 파룬따파를 함께 수련하고 있다.

비트 박사는 말했다. “저는 과거에 다양한 명상과 수행방법을 시도해봤습니다. 그건 마치 낡은 기계에 윤활유를 조금 바르는 것과 같았어요. 반면 파룬따파는 완전히 새 기계로 교체해 준 것 같이 모든 부품까지 새로워졌지요. 이제 60대인 저는 40대와 같은 체력과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저는 지금 콜카타 의과대학에서 성형외과 주임으로 수많은 중환자를 진료하고 수천 건의 수술을 집도했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의학적 기적은 바로 저 자신의 변화입니다.”

## 권위적 성격에서 겸손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비트 박사는 대법을 수련하기 전, 자기 중심적이고 고집스러운 성격이었다. 수십 년간 받아온 교육과 사회적 경험으로 인해 자신이 대단하다고 여기며, 명예와 이익을 중시했다. 직장에서 조금만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아도 불만을 토로하고, 질투심에 휘둘리곤 했다. 가정에서는 자신의 말이 곧 법이었고, 아내의 말을 듣는 일은 상상도 못 했다고 한다.

비트 박사는 수련한 이후, 명예와 이익을 추구하는 마음이 점점 담담해졌다. 갈등이 생기면, 진선인(真善忍·진실·선량·인내)의 원칙에 따라 자기 생각과 행동을 돌아보고 부족함을 찾아내 고치려 노력하게 되었다.

어느 날, 학과에서 다섯 명의 학생이 전공 시험을 치렀는데, 채점 결과가 발표된 후 한 남학생이 공공연히 교수의 채점이 공정하지 않다고 항의했다. 당시 학과장이었던 비트 박사는 이 문제를 처리해야 했다. 그는 먼저 학생들이 이 의학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또 교수들도 공정하게 채점하려고 얼마나 애썼는지를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한 문제에 대해 두 학생이 같은 정답을 썼는데 점수는 각각 달랐다는 사실을 발견했



▲ 인도의 한 의과대학 성형외과 주임인 비트 박사.

다.

조사를 마친 뒤, 그 학생에게 “이번 채점에 분명 문제가 있었고, 이는 학과장인 제 책임이고 채점 기준이 더 엄밀해야 했어요.”라고 말했다. 이 상황을 알게 된 동료들은 학생에게 사과한 것에 매우 놀랐다. 비트 박사는 말했다. “파룬따파는 저를 훨씬 더 겸손하게 만들었어요. 자기 실수를 인정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웠지만, 지금은 그것이 어렵게 느껴지지 않아요.”

한때 집안에서 절대 권위자였던 그는 이제 부드럽고 너그러운 가장이 되었다. 무슨 일이든 아내와 상의하고, 아내가 잘못을 지적할 때도 이치에 맞으면 겸허히 받아들이고 고치려고 노력한다.

## 중국어 배워 대법 서적을 번역하다

비트 박사가 사는 인도 서벵골주는 대부분이 벵골어를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주민이 영어나 힌디어를 잘 읽지 못하기에, 2013년부터 그는 무보수로 벵골어로 대법 서적 번역을 시작했다. 원저를 더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중국어와 한어 병음까지 공부했으며, 매일 파룬궁 창시자인 리홍즈 선생의 설법 녹음을 들었다. 3년의 노력을 거쳐, 2016년에는 벵골어 ‘전법륜’과 ‘파룬궁’이 정식 출판되었다.

서벵골주의 수도 콜카타는 인도에서 일곱 번째로 큰 도시이다. 매년 초 열리는 콜카타 국제도서전은 아시아 최대의 도서전이며, 지역의 대표 문화행사로 자리 잡고 있다. 2015년 이후, 인도 파룬궁 수련자들은 매년 이 도서전에 초청되어 참가하고 있으며, 전시 부스에서는 다양한 대법 서적과 음향 자료를 소개하고 있다. 그중 비트 박사가 번역한 ‘전법륜’과 ‘파룬궁’ 벵골어 판도 비치되어 있어 많은 벵골어 사용자가 파룬따파를 접하고, 삶의 긍정적인 변화를 체험하고 있다.

## “대법이 인생을 환히 밝혀 주었다”

비트 박사의 이야기는 수많은 파룬궁



수련자들의 축소판과 같다. 그들은 세 속에서 지치고 방황하다가, 수련을 통해 ‘진선인’의 원칙에 따라 남을 배려하는 좋은 사람으로 바뀌었다.

비트 박사는 수련을 시작한 이후, 진정

한 삶이 시작되었음을 감탄했다.

“저는 삶의 의미를 알게 되었고, 파룬따파의 빛이 인생을 환히 밝혀 주었으며, 제가 만나는 사람 하나하나에게도 그 따뜻한 빛이 닿고 있습니다.”



## 파룬궁이란?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는 리홍쯔(李洪志) 선생께서 전하신 불가(佛家)의 상승(上乘) 수련대법으로 우주 최고 특성 ‘진선인(真善忍-진실·선량·인내)’을 근본 지도로 삼으며, 느리고 아름다운 동작의 5가지 공법이 있다.

파룬궁은 사람을 선(善)하도록 가르치며 수련자에게 진선인의 원칙에 따라 성실하고 선량하며 관용하는 좋은 사람이 되며 끊임없이 자신의 도덕 수준과 경지를 향상할 것을 요구한다.

파룬궁은 병을 제거하고 몸을 건강히 하는 데 뚜렷한 효과가 있다. 1998년 중국 국가 체육총국이 수련자 1만 2553명을 표본 조사한 결과 질병 완치 및 기본 회복률은 77.5%, 건강개선율 20.4%를 더하면 병을 제거하고 몸을 건강히 하는 총유효율은 97.9%에 달했다.

현재 파룬따파는 세계 100여 개국에 전파됐고 수련자 수는 1억이 넘는다. 리홍쯔 선생이 제자들의 수련을 지도하는 ‘전법륜(轉法輪)’은 50여 개 언어로 번역되어 세계 각지에서 출판 발행하고 있으며 각 민족의 파룬따파 수련생이 매일 필독하는 책이다.







## ‘전법륜’을 읽고 방탕아가 중국문화에 빠져들다

▲ 보그단은 ‘전법륜’을 읽고 선과 악에 응보가 따른다는 이치를 분명히 알게 되었다.(명혜망)

동유럽 몰도바 공화국(Moldova) 출신의 보그단(Bogdan, 27세)은 현재 온화하고 예의 바른 인상을 주는 청년이다. 그러나 그가 한때 학교를 자퇴하고, 마약에 중독되었을 줄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다.

부모에게 쫓겨나 노숙자가 되었고, 차량 절도로 생계를 이어갔다. 차량 절도 현장에서 도망가다가 경찰의 총에 맞았다. 당시 왼팔에 총알이 박혀 척골이 산산이 부서졌고, 그 일로 그는 투옥되었다.

### 파룬궁을 만나 새로운 삶을 살다

2021년, 출소한 보그단은 거리에서 한 여성으로부터 중공의 파룬궁 수련자 생

체 장기적출을 중단하라는 국제적 호소 청원서를 건네받았다. 보그단은 주저 없이 서명하며 말했다. “저는 비록 마약을 하고, 차를 훔치며 온갖 나쁜 짓을 했지만, 아직 양심이 남아 있었어요. 중공이 살아있는 사람의 장기를 강제로 빼앗고 사람을 죽인다는 건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그 여성은 보그단에게 중공의 죄행을 말하고 파룬궁을 소개하는 전단을 주었다. 보그단은 말했다. “처음엔 단순히 가부와 자세가 멋져 보여서 이 공법을 배워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성격과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깊고 신비한 내면 수련이 될 줄은 몰랐죠.”

파룬궁의 핵심 서적인 ‘전법륜(轉法



轮)’을 다 읽고 나서, 보그단의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다. 그는 말했다. “사실 처음에는 가부좌를 배우고 집중력과 두뇌가 좋아지면 다시 차를 훔쳐도 경찰에게 안 잡히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전법륜’을 읽고 나서 처음으로 악행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고 그것이 곧 자신과 가족을 해치는 일이라는 걸 깨달았고, 진선인(真善忍-진실·선량·인내)의 원칙에 따라 살며,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되자고 다짐했어요.”

보그단은 마약을 끊으려고 다짐했고 재활센터나 병원에 의존하지 않고 6개월 만에 마약을 완전히 끊었다. “파룬궁

의 다섯 가지 공법을 연마한 후 연공할 때 몸이 정화되는 걸 느꼈고 금단 증상도 없었어요.”라고 그가 말했다.

총상을 입은 이후, 그는 늘 팔과 어깨, 등 부위에 지속적인 극심한 통증을 안고 살아왔다. 그런데 ‘전법륜’을 읽는 과정에서, 그 통증이 어느 순간부터 사라졌다.

## 중국문화에 빠지다

‘전법륜’을 통해 그는 중국 문화에 빠져들며 절실한 마음으로 중국의 역사와 신화를 읽어나갔다. 그는 제왕이나 장군, 재상, 재자가인(才子佳人) 전설에는



▲ 보그단(왼쪽 두 번째)과 그의 가족(명혜망)



공통으로 양심과 도덕, 인(仁)의 가치가 있다는 걸 발견했다. 충의의 화신, 악비(岳飛), 지혜로운 노자(老子), 덕치(德治)를 행한 강희제, 용기 넘치는 손오공(孫悟空) 등, 그도 이처럼 고결한 품성과 도덕을 지닌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중국문화에 심취한 보그단은 중국어를 독학하기 시작했다. 1년 후, 중국어로 된 '전법륜'을 막힘없이 읽을 수 있게 되었고, 3년이 지난 지금은, 중국어로 된 다양한 책을 자유롭게 읽을 뿐 아니라, 표준 중국어도 유창하게 한다.

보그단이 파룬궁을 수련하는 것에 가족들도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그의 어머니는 늘 아들이 올바른 사람이 되기를 기도해왔고, 보그단이 파룬궁을 만난 것이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 믿었다. 여동생 역시 환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이제야 오빠가 다시 돌아온 것 같아요! 예전의 그 오빠가 아니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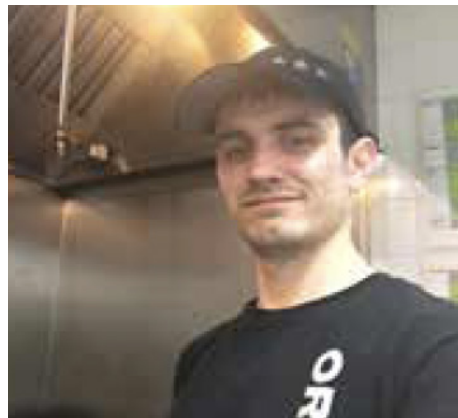
## 온화하고 선량함으로 동료를 감동시키다

보그단은 정상적인 직장을 구해 레스토랑에서 요리사로 일하게 되었다. 하지만 상사는 술을 매우 좋아했고, 자주 돈을 빌리러 왔다. 보그단은 수련 이후 마음이 너그러워져, 매번 기꺼이 돈을 빌려주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상사가 그에

게 진 빚은 점점 불어났다.

그러나 그는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사실 이 상사는 다른 동료들에게도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아, 동료들 사이에 불만이 가득했다. 보그단은 남을 불평하지 않고, 조용히 상사를 찾아가 말했다. “이제 더는 동료들에게 돈을 빌리시면 안 됩니다. 그건 올바른 행동이 아닙니다.” 하지만 상사는 그의 말을 듣지 않고, 화를 냈다. 보그단은 화를 내지 않고 조용히 웃어넘겼다.

어느 날 상사가 다시 보그단에게 돈을 빌리려 하자, 그는 온화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만약 계속 이렇게 돈을 빌리면, 언젠가는 사장님에게 들킬 겁니다. 그러면 직장을 잃을 수도 있어요. 저는 사장님께 고자질하진 않겠지만, 당신도 당신



▲ 한 식당에서 요리사로 일하고 있는 보그단



▲ 파룬궁의 제5장 공법을 연마하고 있는 보그단

행동의 결과에 책임져야 한다는 걸 아셔야 해요.” 그리고서 그는 대법에서 배운 법의 이치를 공유했다. “저도 예전엔 도둑질하고 마약에 빠져 살았어요. 그때 누가 저에게 ‘틀렸다’고 말해도 전 듣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선과 악에는 반드시 보응이 따르고, 남의 것을 빼앗는 건 ‘덕’을 잃는 일이에요. 결국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이 말을 들은 상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다들 나한테는 화내고 욕만 했지, 이렇게 이성적으로 설득한 사람은 없었어요. 당신에게 가장 많은 돈을 빌렸는데도, 비난하지 않고 온화하게 대해


줘요. 어떻게 미움 없이 말할 수 있는 거죠?” 보그단의 진심 어린 말에 상사는 깊이 감동했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걸 자각하게 됐다.

그날 이후, 상사는 점차 변화하기 시작했고, 보그단에게 돈을 갚기 시작했다. 그러자 보그단은 말했다. “제 돈은 안 갚으셔도 돼요. 다른 동료들에게 빌린 돈부터 갚아주세요.” 결국, 상사는 모든 빚을 다 갚았고, 두 사람은 속 깊은 친구가 되었다.

## 수호천사의 이야기

보그단은 수련 전, 한 점쟁이에게서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다. “당신에게 법력이 아주 강력한 수호천사가 있어요.” 당시 그는 코웃음 쳤다. 수호천사가 어디 있어? 그의 마약 친구들은 경찰에 절대 안 걸리는데 그만 매번 잡히고, 총도 맞고, 흠친 것도 다 빼앗겼다.

그러나 수련 후, 그는 그것이 수호천사의 경고이자 보호였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 그가 나쁜 짓을 할 때마다 벌 받으며 제때 죄업을 갚게 했고 또한 나쁜 일을 하면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였다.

보그단은 수련의 길로 이끌어주시고 행복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주신 대법 사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렸다! 





▲ 5월 13일, 미국 텍사스주 상원과 하원은 각각 결의안을 통과시켜,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가 인종과 문화를 초월해 국민과 지역사회에 끼친 복지를 높이 평가했다. 사진은 상원 결의안 발의자인 안젤라 팩스턴(Angela Paxton) 상원의원(앞줄 중앙, 흰색 정장 착용)과 일부 텍사스 파룬궁 수련생들이 함께한 모습이다.

2025년 5월 13일은 전 세계가 함께 기념하는 제26회 ‘세계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의 날’이자, 파룬따파가 전 세계에 전해진 지 33주년 되는 날이다. 미국, 캐나다를 비롯해 북미, 유럽, 호주, 아시아 등 여러 지역의 수백 명 정치인이 축하 메시지와 찬사를 보내거나 현장에 참석하여 지지를 표명했다. 이들은 파룬따파 창시자 리홍쯔(李洪志) 선생님이 전하는 진선인(真善忍·진실·선량·인내)’

의 보편적 가치가 다양한 인종과 민족의 사람들에게 복지를 가져다준 점을 높이 평가했으며, 독재 정권 아래서도 굳건한 신념과 대단한 용기를 보여준 수련자들을 찬양하고 평화적 박해 반대에 지지를 표명했다.

**미국 국회 하원·상원,  
‘파룬따파 보호 법안’ 통과**

2025년 5월 5일, 미국 제119대 하원





은 스콧 페리 (Scott Perry) 연방 하원의원이 발의한 ‘파룬따파 보호 법안’(H. R.1540)을 만장일치로 통과



시켰다. 이 법안은 중공이 즉각 파룬따파 박해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박해 및 파룬따파 수련자의 장기 적출에 관여한 관련자들에게 법적 제재를 가할 것을 명시했다.

또한, 테드 크루즈 (Ted Cruz) 연방 상원의원이 상원에서 같은 내용의 법안(S.817)을 제출했으며, 상원 표결을 거



쳐 대통령 서명을 받으면 정식 법률이 된다.

이 법안은 미국에서 최초로 파룬따파 박해자들을 법적으로 책임 추궁하고 제재하는 내용으로, 구체적 제재 조치에는 자산 동결, 비자 발급 거부 또는 취소, 그리고 관련자들을 ‘마그니츠키 인권 책임법’ 제재 대상 명단에 포함하는 것이

포함된다.

5월 13일, 크루즈 상원의원은 소셜 미디어 X에 중공의 파룬따파 수련자에 대한 잔혹한 박해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것이 종교 자유와 인권에 대한 공격임을 밝혔다. 또한 중공이 지원하는 장기 적출 산업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5.13 미국 국회 의사당에서 두 차례 성조기 게양, 파룬따파 창시자에 대한 존경 표시

5월 13일, 미국 국회 의사당에서 두 차례 미국 성조기를 게양해 파룬따파 창시자인 리홍쯔 선생을 기리며 ‘세계 파룬따파의 날’을 축하했다.

미국 국회 의사당에서 게양된 성조기는 개인이나 단체에게 수여되는 영예이다. 또한 성조기를 게양할 때마다 증서도 수여한다.

올해 리홍쯔 선생에게 국기를 증여한 증서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있다. “본 국기는 2025년 5월 13일 미국 국회 의사당 상공에서 게양되었습니다.

상원의원 크리스토퍼 쿨언스(Christopher A. Coons)의 요청으로 파룬따파 창시자 리홍쯔 선생님을 기리기 위해 게양되었습니다. 올해는 리홍쯔 선생이 중국에서 파룬따파를 전한 지 33주년이



▲ 캐나다의 여러 도시에서 ‘세계 파룬따파의 날’을 기념하는 국기 게양 행사가 잇따라 열렸다. 국회의원, 시장, 시의원들이 현장을 방문해 행사 진행과 칭송하는 선언문을 낭독했으며, 파룬따파 사람들의 도덕 수준을 높이고 세계에 평화와 복지를 가져다준다고 높이 평가했다.

되는 해로, 전 세계 수억 명이 이날을 ‘세계 파룬따파의 날’로 함께 축하합니다.”

같은 날, 델라웨어주 연방 하원의원 사라 맥브라이드(Sarah McBride)도 국회의사당에서 성조기 게양을 요청하여 리 흥즈 선생을 표창했다.

## 5명의 주지사와 5개 주의 의회 수많은 시장과 지역 정계인사가 대법을 표창

미국 펜실베이니아, 미주리, 메릴랜드, 오리건, 미네소타 5개 주 주지사는 각각 파룬따파 창시자나 파룬따파

를 표창하며 파룬따파 수련자들이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에 감사를 표했다.

미국 텍사스와 미주리주 상원 하원, 메릴랜드 하원, 뉴욕 상원, 일리노이 상원 등 5개 주의의회는 파룬따파를 칭송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미국 수십 개 도시 시장과 지방 공무원들은 ‘파룬따파의 날’을 선포하고 표창장을 발행하거나 축하 서한을 보내면서 그들 지역 파룬따파 수련자들을 축복했다.

미네소타 주지사 팀 월츠(Tim Walz)는 표창장에서 “미네소타주는



▲ 세계 각지의 파룬궁 수련생들은 단체 연공, 문화 공연, 성대한 퍼레이드 등을 개최하여, 파룬따파 창시자 리홍쯔(李洪志) 선생의 생일과 5월 13일 ‘세계 파룬따파의 날’을 축하했다. 사진은 대만 타이베이 지역 일부 수련생들이 ‘세계 파룬따파의 날’을 기념하는 모습이다.

파룬따파 창시자와 수련자들이 진선인을 준칙으로 삼아 문화 교류, 지역 사회 봉사, 신체 및 정신 건강 증진에 기여한 점을 인정하며 감사의 뜻으로 ‘파룬따파의 날’을 선포한다”라고 밝혔다.

오리건 주지사 티나 코텍(Tina Kotek)은 “파룬따파는 문화와 인종의 경계를 초월해 평화롭고 관용적이며 더 자비로운 사회 건설에 이바지해 왔으며, 심각한 박해를 당하면서도 진선인의 원칙을 지키는 수련자들의 결의와 용기는 생명의 소중함과 인간 존

엄성을 전 세계에 보여줬다”라고 칭송했다.

## 각국 정치인들의 축하 메시지

5월 13일 ‘세계 파룬따파의 날’을 맞아 미국, 캐나다, 영국, 아일랜드, 독일, 스웨덴, 호주, 슬로바키아 등 여러 국가의 국회의원과 지방 정치인들이 파룬따파의 ‘진선인’ 원칙을 찬양하며, 파룬따파 수련자들의 평화적 박해 반대 활동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아래는 그중 일부 축하 메시지 발췌이다.

아일랜드 국  
회 상원의원  
배리 헤니건  
(Barry Hene-  
ghan)

“세계 파룬파  
파의 날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 날로, 진



선인의 원칙을 전파합니다. 이 가치들은  
문화와 민족의 경계를 초월하며, 오늘날  
세계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보편  
적 원칙은 이해, 평화, 개인의 정직함을  
촉진합니다. 저는 일상생활 속에서 이 원  
칙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분을  
존경합니다.”

영국 국회의  
원, 초당적 종  
교 및 신앙 자  
유 그룹 의장  
짐 새넨(Jim  
Shannon)

“우리는 여  
러분과 함께  
폭정에 맞서



싸우며, 파룬파파의 굴하지 않는 정신  
을 기념합니다.” “이날이 여러분의 신념  
을 더욱 굳건히 하고, 종교 박해 없는 세

상으로 한 걸  
음 더 나아가  
는 계기가 되  
길 바랍니다.”

스웨덴 국  
회의원 안-소  
피 알름(Ann-  
Sofie Alm)



“오늘은 감  
사와 용기를 북돋우는 날입니다. 26년  
간 중공의 파룬파파 수련자에 대한 박해  
와 탄압에도 불구하고 평화적 저항을 지  
켜온 힘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정의를 지  
키고 부당함에 맞서며, 인권과 신앙의 자  
유를 수호하는 용기 있는 이들을 존경합  
니다.”

독일 헤센주  
의회 기독교  
당 의원 하이  
코 카세커트  
(Heiko Kass-  
eckert)

“오늘은 희  
망과 인간애가  
가득한 날입니



다. 이는 어려움과 박해 속에서도 진리의  
빛은 절대로 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  
억하게 하는 날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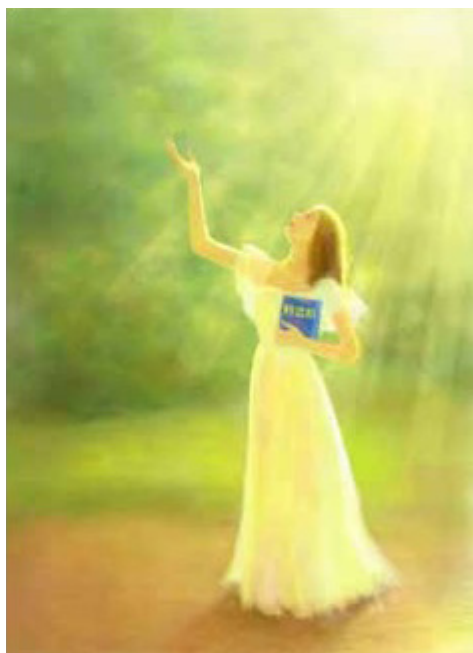


# 허무한 꿈 깨고 구함 없이 스스로 얻다

글/ 바이원(白芸, 중국)

피땀 흘려 번 돈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었네  
절망 속에서 다시 자신을 돌아보며  
마음을 바로잡은 끝에  
인생의 밝은 빛을 맞이하네

.....



▲ 회화: 《빛을 향해(向着光)》

2016년, 아이를 낳은 지 1년이 지나 다시 일터로 복귀했다. 당시 업계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고, 주변 동료들의 수입도 급격히 늘어나 차를 사고 집을 사는 사람들이 많았다. 나 역시 물질적인 분위기에 휩쓸려 따라갔다.

그 시절의 돈에 대한 집착이 아주 강했고, 온 힘을 일과 돈 버는 데 쏟아부었다 보니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를 수련하는 사람이라는 사실도 거의 잊고 살았다. 그 당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래로 끝없이 추락하는 꿈이 반복되었지만, 그런 꿈조차 나를 깨어나게 하지는 못했다.

## 남편의 도박으로 가세가 기울다

그 몇 년 동안 분명 많은 돈을 벌었다. 그러나 열심히 돈을 버는 동안 남편은 인터넷 도박에 빠져 많은 돈을 잃었고, 힘들게 번 모든 것이 순식간에 사라졌으며, 오히려 막대한 빚까지 지게 되었습니다. 일터에서도 온갖 문제와 사기 등에 시달리며 정신 상태는 거의 붕괴 직전이었다.

어느 날 밤, 침대에 누워 절망 속에서 오열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았고, 심지어는 삶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하지만 대법 사부님께서 말씀하신 “자살은





죄가 된다”라는 법리를 떠올리며, 절망으로 나아갈 수는 없었다. 그때 유일한 길은 다시 대법 수련으로 돌아가 자신을 바로잡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 ‘전법륜(转法轮)’을 다시 읽고 마음의 평온을 얻다

그 깊은 밤, 다시 사부님의 ‘전법륜’을 펼치는 순간, 마음은 전에 없이 고요해졌고, 대법이야말로 인생의 진정한 중심이며, 돈과 재물은 모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달았다.

이 모든 것은 황량한 꿈처럼 허망했지만, 마치 무거운 망치로 얻어맞은 듯한 충격이었다. 이 몇 년간 명예와 이익만을 좇았으니 대법제자라고 할 수 있었을까? 그 고통스러운 시기에 ‘전법륜’과 사부님의 다른 책을 꾸준히 읽으며 원망을 내려놓고, 집착과 사람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 사부님의 법을 읽으며 세속의 명예, 이익, 감정을 초월할 수 있었고, 모든 일을 선량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대할 수 있게 되었다. 남편에 대한 원망도 사라졌고, 더는 고통스럽지 않았다.

## 남편, 대법을 배우고 새사람이 되다

남편을 구하고 싶어, 함께 법을 공부하고 나쁜 습관을 버려 가족이 다시 새롭

게 출발하자고 제안했다. 그를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모습을 본 남편은 크게 감동했고, 자신이 이렇게 큰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원망하기는커녕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 준 것에 놀라워했다.

만약 대법 법리의 인도와 깨달음이 없었다면, 나 역시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없었을 것이다. 이 일을 계기로 남편은 파룬따파(法轮大法, 파룬궁)가 참으로 훌륭하다는 것을 진심으로 깨달았고, 나와 함께 사부님의 ‘전법륜’을 공부하며 ‘홍음(洪吟)’을 암송하고, ‘공산당에 대한 9가지 평론(九评共产党)’도 통독했다.

남편은 대법을 배우고 나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었다. 도박을 완전히 끊었고, 이후로는 어떤 일을 하든 수련자의 기준에 따라 자신을 단속했다. 그 후 우연한 기회로, 나와 남편은 함께 세계 500대 기업 중 하나인 디자인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다.

## 명예와 이익을 내려놓자, 일도 술술 풀리다

직장에서는 진선인(真善忍-진실·선량·인내)의 대법 원칙에 따라 사람을 대하고 일을 처리했다. 회사 동료들은 나와 남편이 정직하고 친절하며, 일도 매우 성실하게 한다고 평했다. 연말 회사에서 우수 직원 선발이 있었는데, 두 명의 디자



이녀가 그 자리를 두고 다투는 일이 벌어졌다. 갈등을 피하고자, 회사가 내게 주려 했던 그 자리를 기꺼이 양보했다.

더는 명예나 이익을 좇지 않자 오히려 일이 점점 더 잘 풀리기 시작했다. 생활도 안정되고, 수입도 점차 나아졌으며, 남편은 마침내 부서장으로 승진했다.

코로나 이후, 사회 전반이 침체하고, 많은 대기업도 구조조정과 급여 삭감을 단행했다. 우리 회사도 예외는 아니었지만, 우리 부부는 흔들리지 않고 평온한 마음으로 맡은 일을 묵묵히 해나갔다.

그러던 중, 회사 임원의 소개로 남편이 회사 외부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 임원은 “회사 업무를 잘 수행하는 조건으로, 개인 프로젝트도 맡아보라”고 제안해 주었고, 그 덕분에 무급상태의 어려움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었다. 비록 힘들고 고된 일이었지만, 늘 마음을 다해 일에 임했고, 끝까지 책임을 다했다.

## 성실하고 바르게 살면, 복은 스스로 따른다


2024년 초, 회사는 이미 반년 가까이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새로운 프로젝트도 없었다. 많은 동료는 회사가 곧 망할 것으로 여기며, 폐업 시 받을 퇴직 보상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나와 남편

은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이 길어, 만약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꽤 큰 금액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심사숙고 끝에 자발적으로 사직하기로 했고, 보상도 요구하지 않았다. 이 결정을 들은 회사 임원은 매우 감동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회사를 떠난 후, 수입이 줄기는커녕 오히려 더 늘어났다. 우리가 직접 맡은 프로젝트들은 결과와 품질 모두 뛰어나 좋은 평가를 받았고, 자연스럽게 의뢰가 점점 더 많아졌다.

함께 일하는 파트너들은 하나같이 말했다. “두 분은 실력도 뛰어나고, 인품도 좋고, 책임감도 강해서 함께 일하고 싶어요” 그래서 프로젝트만 생기면 가장 먼저 저희를 찾는다고 합니다.

같은 업계 사람들은 의아해했다. “경제가 이토록 침체하고, 업계 전체가 한산한데, 왜 저 사람들은 오히려 일이 넘치고 바쁠까?”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나와 남편이 대법의 가르침을 따라, 떳떳하고 바르게 살아온 덕분이라는 걸 나는 알고 있다.

세속의 욕망에 휩쓸려 길을 잃었을 때 일깨워주신 사부님과 대법에 감사드립니다. 그 덕분에 나와 가족은 다시 바른길로 돌아올 수 있었고, 인간 세상의 득실에 집착하지 않았기에 구함이 없이 스스로 얻는 경지에 도달할 수 있었다. 



# 가스통이 폭발하려는 일촉즉발의 위기 속에서



글/ 신츠(心慈, 중국 장춘)

어느 날, 나는 가게에서 손님의 머리를 다듬고 있었다. 그때 문득 고개를 드니, 길 건너편 분식집에서 새까만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뭔가 심상치 않아 서둘러 달려갔다.

분식집 안에서는 “탁탁!”하는 소리가 계속 들렸고, 주변에는 이미 많은 사람이 몰려왔다. 사람들은 분분히 “가스통이 곧 폭발할 것 같아요”, “소방대에 연락은 했지만 도착까지는 시간이 부족할 거야”, “이 건물 뒤편엔 변압기가 있어서, 불이 붙고 터지면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질 거예요.” “이 거리 전체가 잿더미가 될 수도 있어요.”라며 불안해했다.

소문을 듣고 달려온 동네 사람들 얼굴에는 공포, 당황, 초조함이 가득했다. 가스통이 언제 폭발할지 몰라 누구도 안으로 들어가려 하지 않았다.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때 분식집 주인이 급히 달려왔다. 여주인은 두려움에 울고 있었고, 남편은 어쩔 줄 몰랐다. 원래 젊은 부부는 식재료 사러 잠시 외출했는데, 가스불을 켜놓은 것을 깜빡했고 심지어 가스레인지 위에는 기름이 가득 찬 쇠솥이 있었고 기름은 다 타버려 쇠솥이 터지는 소리까지 들렸다……

여주인은 내 손을 붙잡고 말했다. “이걸 어쩌죠? 집도 전세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폭발하면 인생은 끝이에요……” 나는 그들에게 차분하게 말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진심으로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전산런하오(真善忍好-진선인은 좋아요)!’라고 외워보세요.”

극도로 급박한 상황에 누군가는 안에 들어가 가스불을 꺼야 했지만, 두려워 아무도 나서지 못했다. 그때 나는 생각했다. ‘대법 수련자로서 거리 전체의 생명과 재산을 위해서 내가 들어가야 해.’

그렇게 아무 망설임 없이 탁탁 소리가 울리는 건물 안으로 뛰어들었다. 검은 연기가 자욱해 앞이 보이지 않아 부엌에서 새어 나오는 불빛을 따라 앞으로 나아갔다. 가스통은 이미 온통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강한 열기로 가까이 다가갈 수



조차 없었다. 그 순간 멍하고, 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지만 마음을 다잡고 속으로 계속 되뇌었다: “파룬따파하오, 찼싼런 하오” 사부님께 간절히 도움을 청했다.

잠시 후, 이웃집 남성 한 명이 안으로 들어왔다. [파룬따파의 진실을 알고 ‘삼퇴’(중공의 당·단·대에서 탈퇴)를 한 분.] 우리는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 창문을 힘껏 걷어차 열고, 젖은 행주로 뜨거운 쇠술을 창밖으로 던진 다음, 가스 메인 밸브를 재빨리 잠갔다. 그 일련의 행동들은 너무나 빠르고, 마치 누군가 이끌어주는 듯 기적처럼 이루어졌다.

나와 이웃 남성이 밖으로 나오자 여주인은 내 손을 붙잡고 울먹이며 말했다. “너무 고마워요! 정말 감사합니다!”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내가 대법 수련자임을 알고 있었고, 모두가 경이롭고 존경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나는 여주인에게 말했다. “진짜 감사해야 할 분은 대법 사부님이에요. 사부님께서 당신을 구해주신 거예요.”

연기가 사라진 후, 우리는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갔고, 그 순간,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숨이 멎을 뻔했다. 내가 부엌으로 가기 위해 지나야 했던 문틀 한가운데, 고열로 끊어진 전깃줄이 늘어져 있었는데 머리에 닿을 수 있는 높이였고, 심지어 아직 전기가 흐르고 있었다. 당시

엔 연기로 앞이 보이지 않아 그런 위험을 전혀 알아차릴 수 없었는데, 아무 일 없이 드나들 수 있었던 건 대법 사부님의 보호 덕분이라는 걸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도 하나같이 “정말 기적이다”라며 개탄했다.

그 후, 여주인은 대법 책 ‘전법륜(轉法輪)’을 읽기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나 자신을 간단히 소개하겠다. 나는 스물다섯 살에 파룬따파 수련을 시작했다. 평소 손님과 이웃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손해를 보거나 억울한 일을 겪어도 웃어넘기며, 남에게 상처받아도 탓하지 않았다. 그 덕분에 좋은 평판을 얻었고, 주변 수십 리 안팎에서는 내가 파룬궁수련자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이다.

미용실은 오랜 세월 손님이 끊이지 않았고, 나는 늘 파룬따파의 아름다움과 대법이 중공에 의해 어떻게 박해받고 있는지를 손님들에게 알려왔다. 수십 년 동안 고객 대부분은 삼퇴를 했다.

만약 대법을 수련하지 않았다면, 그런 위험한 순간에 나서기는커녕, 아마도 다른 사람들처럼 가만히 지켜보기만 했을 것이다. 그러나 파룬따파는 이기심 없이 타인을 먼저 생각하도록 가르쳐 주었다. 그 덕분에 거리 전체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낸 것이다.





# 상식을 회복해야 우리의 길을 알 수 있다

글/ 탕스윈(唐時筠)

인터넷에서든 현실에서든 중국이나 중공에 관해 말하면 즉각 조건반사적으로 “당을 반대한다”거나 “애국심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사실 이것은 중공과 중국의 개념이 혼돈되어 조성된 것이다.

중국인으로서 다음과 같은 문제를 모른 이가 진지하게 고민해볼 가치가 있다.

## 상식 1:

### 중국은 중공과 같지 않다

중화 대지는 조대(朝代) 교체를 거듭하며 오랜 역사를 지녔다. 태평성대와 통일도 있었고 전쟁과 분열도 있었다. 조대는 오고 가지만 모든 시대가 중국이었다. 그러나 불과 수십 년의 역사를 가진 중공이 어떻게 5천 년 문명의 중국과 동일시될 수 있겠는가?

중화민족은 수천 년 동안 하늘을 공경하고 신을 믿으며, 유가의 인(仁), 불가의 선(善), 도가의 진(真)을 신봉해왔다. 그

러나 중공은 무신론과 외래의 마르크스주의를 신봉하며, 중화민족의 전통 이념과 완전히 상반된다.

진정한 중국인으로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중공은 중국과 같지 않으며, 더욱이 중국을 대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애국은 애당(愛黨)과 같지 않다.

## 상식 2: ‘공복’은

### ‘주인’의 권리를 도용해선 안 된다

중공은 또한 “인민을 위해 봉사한다”라며 “인민의 공복(公仆)”이라 자칭하고, “인민이 주인 노릇을 한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제로 중국인들은 자주적인 권리가 없다. 사상적으로 중공과 일치해야 하며,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하든, 생계유지 수단과 행동까지도 모두 중공이 허용하는 것이어야 한다.

생각해보라. 어떤 하인이나 집사가 한편으로는 주인을 섬긴다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주인의 권리를 행사하고, 심지어 주인의 생사여탈권까지 갖고 있는가?

## 상식 3:

### 고인들은 우리를 속이지 않았다

중국 전통문화는 유구하고 깊으며, 하늘을 공경하고 신을 믿어왔다. 그러나 중공은 이것들을 “미신”이고 “낙후했다”라며, ‘무신론’으로 중국인을 세뇌했다.





▲ 파룬궁 수련생들 뉴욕 퍼레이드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중공은 중국이 아니다”를 알리고 있다.

세계의 선진국들도 신에 대한 믿음이 있으며 많은 유명한 과학자들도 신을 믿는다는 사실은 차치하고라도, 중공의 최고 지도자 마오쩌둥을 예로 들어보겠다. 1976년 지린(吉林) 운석 비가 내린 후, 마오쩌둥은 간호사 명진윈(孟錦雲)과의 대화에서 “중요 인물이 죽을 때 하늘에서 큰 돌이 떨어진다”라는 말을 믿는다며 또한 “중국에서는 이를 ‘천인감응’”이라고 명확히 말했다. 마오쩌둥은 1976년에 죽은 것도 이 감응을 증명했다. 그러기에 중국 사람으로서 ‘무신론’ 거짓말에 속지 말아야 한다!

#### 상식 4: 맹세는 지켜야 한다

중국인은 중공의 당과 공청단 소선대

에 가입할 때 주먹을 들고 “공산주의를 위해 언제나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맹세를 하게 된다. 이는 사실상 독한 맹세를 강요하는 것이다. 세계 어떤 정당도 이렇게 하지 않았다.

중공은 이런 맹세를 통해 중국인의 운명을 자신들과 강제로 연결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 전통문화는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한다.

맹세한 사람은 중공의 운명을 함께 짊어지게 되는 것이며, 만일 중공이 멸망한다면, 그 맹세에 동의한 자 역시 함께 파멸될 것이다.

소중한 중국인들이여, 하루빨리 ‘삼퇴’(중공의 공산당·공청단·소선대 조직 탈퇴)하고 독한 맹세를 해제하여 평안한 길 바란다!



# 왜 ‘삼퇴(三退)’해야 평안을 얻을 수 있는가

‘공산당에 대한 9가지 평론(九评共产党)’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각성을 불러일으켰으며, 마르크스-레닌의 자손이 되지 말고, 중화의 자녀가 되자는 인식이 점점 더 많은 사람의 공감으로 확산되고 있다. 2025년 6월 16일 기준, 해외 ‘탈당(退党)’ 전문 웹사이트에 ‘삼퇴’(당, 단, 대 탈퇴)를 선언한 사람은 이미 4억 4800만 명을 넘어섰다.

당을 따르겠다고 한 맹세가 진짜가 아니야, 눈 깜빡이지 않고 당신을 속일 수 있어.

이 친구는 아직 ‘삼퇴’ 안 했으니까, 같이 일할 땐 조심해야 해!



모든 중공 조직 가입자는 가입 당시 주먹을 들고 “공산주의를 위해 헌신하겠다”라는 맹세를 하는 순간, 다른 공간에서는 공산주의 악령(邪灵)에 의해 ‘짐승의 기호(兽印)’를 찍게 되며, 그 사람의 생명은 공산 악령의 통제 아래 놓이게 됩니다. 하지만 신불(神佛)은 자비로우시기에, 중공이 멸망하기 전까지 인간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고 있다! 탈당 사이트에서 진심으로 ‘삼퇴’ 성명을 하면, 신불은 그것을 “공산 악령과의 완전한 단절”로 보시고, 다른 공간에서 짐승의 기호를 지워준다. 그래서 훗날 신불이 공산당의 죄악을 심판하실 때, 그 사람은 더는 그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삼퇴는 자신을 위한 평안의 길이다. 단, 나이 초과로 자동 탈퇴하거나, 중공 기관에 직접 탈퇴를 요청하는 것은 진정한 ‘삼퇴’로 간주하지 않으며, 짐승의 기호도 지워지지 않는다.

신불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 진심으로 탈퇴한다면 진명 가명 애명도 다 된다. “삼퇴” 등록: <https://santui.tuidang.org>



# “걸어치워라! 국민을 속이려는 자작극이잖아!”

글/ 여군(如君)



▲ 휘발유에 불이 붙으면 섭씨 500도 이상 올라가는데 왕진둥은 “끄떡없이” 앉아 있다. 이걸 누가 믿을까?

상식 있는 사람은 다 알고 있다. 휘발유에 불이 붙으면 섭씨 500도 이상 올라간다. 500도는 고사하고, 100도 끓는 물에 손을 넣는다고 해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중공 중앙TV(CCTV)가 방송한 ‘텐안먼 분신자살’ 영상을 보면, 왕진둥(王进东)은 온몸에 화상을 입고도 말 그대로 “끄떡없이” 앉아 있다. 이걸 누가 믿을까?

어떤 시청자는 말했다. “요리하다 뜨거운 기름 한 방울만 팔에 튀어도 펄쩍 뛰는데, 분신이 진짜라면, 왕진둥은 텐안먼 광장에서 벌써 펄쩍펄쩍 뛰고 난리였을 거다.” 걸어치워라! 국민을 속이려는 자작극이잖아!

게다가, 왕진둥의 옷은 불에 타서 망가졌지만, 두 다리 사이에 있던 휘발유가 담긴 초록색 스프라이트 병은 새것

처럼 멀쩡하고, 타기 쉬운 머리카락도 그대로였다.

누군가 실험 해봤다. 휘발유가 들어 있는 플라스틱병에 불을 붙이면, 5초 만에 병이 말랑해지고, 7초엔 모양이 변하고, 10초면 그냥 쪼그라든 덩어리가 된다. 왕진둥 다리 사이의 병은 무슨 특수 소재라도 되는 건가?

‘분신자살’은 갑작스러운 사건이라고 했지만, 중앙TV 기자는 이 장면을 흔들림 없이 선명하게, 사건의 전개를 따라가며 촬영했다. 원경, 근경, 클로즈업까지 다 갖춘 고화질 영상, 이게 말이 되는가?

TV 전문가는 바로 한눈에 ‘연출된 장면’인 것을 알아보고,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텐안먼은 최대의 영화 세트장이 됐다.”





## 고요함과 경지

마음 닦고 안으로 찾아보니 망념이 사라지고  
 법을 배우고 연공하니 참된 청정함이 깃드네  
 오묘함은 말하지 않아도 법 속에 스며들고  
 어디에서나 남을 위함에 끝이 없네

## 静与境

修心内找妄念净  
 学法炼功真清静  
 微妙不言溶法中  
 处处为他无止境

### 봉쇄들과 소프트웨어 받는 방법

[PC 버전] <https://j.mp/fgp88>

[안드로이드 VPN] <https://j.mp/fgv88>

안내: 중국산 브라우저에서는 이 주소가 열리지 않을 수 있어 Edge, Chrome, 애플 Safari 등 브라우저를 권장합니다.